

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약물의 수치법 요약

- 강제薑製 반하 등의 한약에 생강즙을 버무려 독성을 완화하는 것.
- 국麴 반하 등의 한약재를 분말한 다음 누룩을 넣고 발효 시켜 덩어리로 만든 것.
- 거목去木 복령 등 나무의 뿌리를 포함할 수 있는 한약재에서 목질부를 제거하는 것.
- 거모去毛 창포나 녹용 등의 약재에서 잔털이나 털을 제거하는 것
- 거심去心 원지 등 약재의 줄기 속에 심이 든 것을 제거하는 것.
- 거양去穰 지각 등 열매에서 유래한 한약재의 속살을 제거하는 것.
- 거차去叉 三因獨活散에서 防風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. 갈래진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보인다.
- 거토去土 지룡 등 흙이 묻어 있거나 속에 포함한 충류 약재에서 흙을 제거하는 것.
- 거피去皮 껍질을 벗기는 것.
▷거피제去皮臍 : 부자에서 껍질과 배꼽처럼 생긴 부위를 제거하는 것.
▷거피첨去皮尖 : 씨앗류 한약재의 껍질과 끝의 씨눈 부분을 제거하는 것
- 말末 분말하는 것.
▷배말焙末 : 불에 쪄서 말려 분말하는 것
- 방鎊 녹각 등과 같은 단단한 약재를 줄로 깎는 것
- 벽擘 약의 유효성이 잘 우려나도록 껍질이 단단한 한약재를 쪼개는 것
- 설屑 영양각 등과 같은 단단한 약재를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
- 수비水飛 광물성 한약재를 가공하는 방법. 먼저 물과 함께 약물을 갈아서 그릇에 두면 거칠고 큰 입자는 가라앉고 미세하고 부드러운 입자는 위로 뜬다. 이 위로 뜬 것만 따라 내어 다시 물을 부어 미세한 것만 취하는 것을 거듭하여 말려 쓴다. ‘앙금 짓기’로 순화된 표현이 있다.
▷비과飛過 : 수비의 과정을 거쳐 여과하는 것.
- 연研 곱게 가는 것.
▷난연爛研 : 과루인과 같은 유지가 포함된 약물을 짓찧어 분말하는 것.
▷영연另研 : 광물성 약물을 별도로 나눠 곱게 가는 것.
- 오고杵膏 대조 생지황 등 육질이 풍부한 한약재를 절구에 넣고 찼어 고약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.
- 오유熬油 기름을 볶아 졸이는 것
- 외煨 약재를 축축한 밀가루로 싸서 뜨거운 활석분(滑石粉) 속에 파묻어 외피가 누렇게 될 정도로 굽거나, 여러 겹의 종이에 싸서 구움으로써 치료에 이롭지 못한 유지(油脂)와 자극성 휘발물질을 제거하는 방법. 예를 들면 외목향이 예가 된다.
▷면과외麵裏煨 : 밀가루로 싸서 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.

자炙	꿀이나 약즙 등과 같은 액체 성분의 보료를 약물에 붓고 볶는 것. ▷밀수자蜜水炙 : 꿀물을 붓고 볶는 것. ▷수자酥炙 : 연유를 붓고 볶는 것.
주침酒浸	술에 담가 두는 것
증蒸	시루에 넣고 찌는 것. ▷반상증飯上蒸 : 밥 위에 놓고 찌는 것. ▷주증酒蒸 : 시루에 넣고 술을 붓고 찌는 것.
초炒	볶는 것 ▷초오炒杵 : 약물을 볶은 다음 절구질하는 것. ▷부초麩炒 : 밀기울을 넣고 함께 볶은 뒤 밀기울은 버리고 약만 골라 쓰는 것. ▷면초麵炒 : 밀가루를 넣고 함께 볶는 것. ▷주반초酒拌炒 : 술에 버무렸다 볶는 것.
초거사炒去絲 ..	백강잠을 볶아서 누에 실을 제거하는 것.
포炮	젖은 한지 등으로 싸서 잿불에 넣고 통째로 굽는 것.